

벼랑끝으로 달려가는 한국의 교육 정책

우리나라의 교육개방은 94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95년 우루과이리운드 협정과는 별도로 전쟁인 한·미 쟁부합상에서 교육서비스의 시장개방이 논의되었고, 김영삼정부는 외국인 투자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교육개방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95년 출범한 WTO는 그 전의 GATT체제(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련협정)가 상품교역과 관련한 협상을 지배해온 기구였던 것과는 달리 교역의 대상을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와 저작재산권까지 포함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은 많은 지원을 가지고 체한없이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WTO

를 앞세워 국가 공공성 영역까지 열어추구를 위한 싱포니스트로 변모시키는 과정을 추진중이다.

WTO내 교육부문과 같은 공공분야는 서비스 일반협정(GATS)에서 협상을 한다. 2000년부터는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본격적인 개방을 위한 협상을 진행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의 주도로 WTO 4차 각료회의가 열려 우루과이리운드(86년~94년)를 잇는 '도하개발협약'(DDA)과, 교육, 의료, 문화와 같은 공공서비스부문 개방협상 일정이 확정되었다.

협상일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교육

시장 개방을 위한 요구안(양허요구안)을 2002년 6월 30일까지 제출하고, 양허요구안을 주고받은 나라간 9개월의 협상을 거쳐 2003년 3월 31일까지 개방협회서(양허안)를 제출하고, 이와같은 나라간 개별 협상을 통해 서비스의 협상이 완료된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총11개국에서 개방요구를 받았다.

정부는 '외교상의 관례'이며 외국이 요구한 협상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개방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법'

을 국회에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외국기관이 자유롭게 회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외국인 학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관한 교과를 주당 1시간만 운영하면 국내대학을 인정해 주며, 외국우수대학은 변변한 시설이 없어 교육기관으로 학교 경영이 쉽게 허용되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도 달리 경제자유구역법이 국제교류법과 통과하자 '국제교류법'을 폐기하는 정부로 서두르고 있다.

권문주 기자
redbubble2000@hanmail.net

교육개방! 경쟁인가, 장사인가?

찬성론자 - "대학전략화로 국가경쟁력 높일 것"

반대론자 - "부의부빈익빈현상으로 공공성 사라질 것"

교육개방이 고양으로 다가왔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각료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한 도하개발협약(DDA)협상에 따라 교육개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회의에서 미국은 자국의 농업과 제조업 등 전통산업 분야의 시장을 보호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에게 교육, 금융, 의료 등을 포함하는 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처음 개방협상이 시작된 2000년에 설정한 가이드라인대로 우리나라가 작년 6월 '개방요구안'을 주고받았으며, 올해 3월 31일까지는 개방계획(양허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징가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교육개방조치를 취하고 있다. 작년 정부는 △사업화교법/고등교법 △경제자유구역법 △산업화진흥법 △교육공무원법 △국공립대 특별법 5개의 법안을 통과시켜 놓았으나 이 중 '경제자유구역법'이 통과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허안 제출시기가 4주도 남지 않은 현재 교육개방에 대한 찬성론자들이 함께 대립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대학전략화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대학들의 교육방식 및 내용 변화 △정책적 변화 △학과 및 교육의 국제화 등을 이유로 교육개방에 찬성하고 있다.

기획재정성장 김민경(정경화회) 교수는 "교육이 개방된다면 외래의 인재소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기조처장은 "교육가 재정적 면에서 내실을 기하고 있고 학교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개혁도 진행 중인 증거 때문에 내부 경쟁성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자제대학과 실질적 합작교과, 공동학위과정, 교수연구교류 등을 활성화하고 있다"며 "교육개방은 시대적 상황이다. 교육개방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원인적으로 받아들이고 대학의 내실을 기하며 정체성 살피는가 등 대응을 잘 해 나간다"면 비판할 필요는 없다.

적극적으로 보면 외래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혀 교육개방에



교육개방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독일의 학생들

대한 경쟁적 견해를 밝혔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교육의 돈벌이 수단으로의 전락 △교육비의 폭등으로 인한 불평등 심화 △교육노동자의 신분불안 △교육주권의 상실과 지적식민으로 전락 △외국자본의 침투 등을 이유로 교육개방에 반대하고 있다.

사법대 학생회장 흥기회(불어교육 01) 양은

"교육은 누구나 다 받아 할 권리이다. '경쟁'은 필요하지만 그로 인해 단 한명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교육의 특수성이 공공성이 사라지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이 개방되면 부의부빈익빈현상 발생, 등록금이 상이 불가피하고 우리대학에서는 '외래'라는 특수성이 사라질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무자

인구하고 있다.

오는 13일(목)에는 WTO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동시에 WTO 교육개방 반대 세계 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민경 기자
mksophia@hanmail.net

공부본의 활동에 대한 소개와 지금 우리나라 교육개방 현실에 대해 말해달라

교육개방을 활동하는 단체들은 전국교수노동조합·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교육학생연대등 이모여 작년 10월 7일에 결성되었다. 그로부터 WTO교육개방교육시민행동네대 입법자치를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교육개방의 위험성을 알렸다. 이러한 노력덕분에 일부 학교에서 교육개방에 반대하는 학생회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교육개방으로 인해 학생들을 환골탈태의 기회제공 속으로 받아들이며 외래가 학생을 알리는 역할을 해야한다"며 "경쟁적 특수면으로는 외국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두고 부정적 특수면으로는 민족주체성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조선, 전국대학노동조합, 교수노조, 학생연대, 한국기독교수노동조합, 학교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국전문대학수협의회연합회, 청교도를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WTO교육개방 시장화에 대한 대입법제를 구성하고 △기자회견 △인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조선, 전국대학노동조합, 교수노조, 학생연대, 한국기독교수노동조합, 학교개혁시민운동연대, 전국전문대학수협의회연합회, 청교도를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은 WTO교육개방 시장화에 대한 대입법제를 구성하고 △기자회견 △인시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개방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이 교육개방에 있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방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이해관계들이 힘을 지어 않아 기꺼이 있어도 개방되지 않을 때에 각국에서 최종결정 후 정부차원에서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양허안 제출은 곧 실질적인 개방을

교육개방되면 외대는

등록금은 오르고 교수는 임용불안

교육개방이 됐을 경우 우리학교를 비롯한 한국 대학들은 어떤 행정을 받을까요?

일단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고분비가 가장 될 것이다. 일미 전 교육인적자원부가 외국 우대대학들을 유치를 위해 마련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입용 기본 재산 확보' 의도도 면제 된다는 규정이 있다.

사립대학이 재원확보를 위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수입용 기본재산이 외국대학원에는 강제사정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드는 부족분은 등록금을 인상하여 충당해나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뛰어

어 국내 사립대학도 당당히 등록금을 올리게되면 결국 내·외국대학원을 막론하고 전국 1천여명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에 다니야 할 일 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교육의 공정성 차원에서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것은 고사하고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이다.

또한 교수들은 고용

불안을 겪을 것이다.

외국대학들은 학교 운영의 효율을 폐하는 명목 하에 교원을 계약제로 인용해 교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외국대학의 이런 행태가 보편화되며 국내대학도 차지하게 된 서열화가 강화·고화질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것은 취업으로 연결되는 유학은 못 가려도 최소한 외국대학이나 우리나라 되지 않는다는 풍토가 생겨 취업문이 더 좁힐 것이다.

한국 외국대학원의 설립과 성장이 자주로

위기 때문에 대학교(원) 문을 닫아 학교에 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인터넷신문 유

뉴스(www.unews.co.kr)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얼마전 국내에 진출한 미국의 한 대학원이

개학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부처와 협력적인

논의는, 교육개방은 대체로 나후한 한국

교류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며, 그

이번에는 한국 시장은 미국중심의 금융세계

화에 속속 참여시켜라는 외교통상부, 재

무부 등에 포함한 일부 친미시민주의

세력과 교육개방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시

정책을 추진하려는 소수 시장주의자들

의 움직임도 도사리고 있다.

교육개방 찬성론

자의 선두주자인

한국교육개발원 고

등록금팀장 이인희

박사는 여러 차례

교육개방의 필요성

을 역설하였다. 그

의 주장은 핵심적

인 지지를 크게 3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교육

은 '공공재' 가 아

닌 '시유재' 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는 우리 교육의 경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교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한 경쟁체

제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개방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셋째는 우리 교육자체가 매우 부족

하기 때문에 고통교육에서는 이를 '보완

재'로 활용하고 우리 재정은 초·중등 단계

에 집중화되는 것이다.

첫째는 교육은 학생에게 협상을 통해 공공서비스

의 시장자유화속도를 높이고 민간기업의 이해

를 따르게 하며△공공서비스를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뿐만 아니라 대중의 합의가 전혀

없었고△교류·문화·미디어에 관한 규제를 강

화를 보고 이를 제거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문화·교류를 단순 상품이나 소비품으로 취

급하는 것에 반대하며△교류·문화·미디어 분

의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 있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신자유주의의 정체에 반발해, 프랑스, 스

페인에서 학생·교사가 대체적인 반대 시위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에서 국제적

협동동그룹을 조직하고 학교의 기업화와 자치

의 상문화에 맞서는 투쟁은 더욱 조직적인 방

식으로 벌어지고 있다.

또한 2002년 10월 18일 유럽자치 문화·교

육장관들은 '문화다양성과 GATS에 관한

Briar·선언서'를 채택했다. 선언서에서 그들

권정우 기자
tingyu@hanmail.net

동남아시아

성급한 시장개방으로

인한 인력 유통과 학

학의 종속화 심화

이미 94년부터 고등교육을 개방한 동남아시아는 단순히 분교를 설립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국내대학에서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해외에서 학위를 주는 방식으로 고등교육시장을 개방하였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1996년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가 외국대학 교료를 허용하는 입법조치를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자본과 물질적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 대학들은 학위수여와 같은 교육에 관한 부문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말레이시아내 사립 교육기관은 험행법상으로 물질상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립 교육기관은 외국의 대

학과 제휴해 1~2년 수강한 재학생이 외국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한 뒤 외국에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게 되어있다. 외국대학 분교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외국으로부터 교육자원의 이권을 심화 시켰고, 교육의 횡단화, 외국어 사용으로 생기는 문화의 뒤틀림 현상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대학에서는

등록금 인상과 국가지 원축소 그리고 기업자

정책 확장을

제작한

포스터

이다.

그리고

99학번 출업생 류재홍씨의 외대 이야기

“4년동안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는 학점 때문에 사학과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었다. “학부제의 폐해로,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선택하게 한다는 기본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학부제가 바람직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보지 못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과에 가지 못한 친구들은 편입을 하고 아래 수능을 다시 치르고...” 엉나가버린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는 말을 흐린다.

대학의 공동체문화가 불피워지는 현실을 목도하는 것도 그에게 가슴 아픈 일이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대학원에서의 남언어가 차지된다고 느꼈어요. 하니못에 대학도로 진정한 대동의 장이 되지 못하잖아요. 개인주의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학연배움부터 출입에 목을 매고...” 고민하면서 류씨는 미지역에 받은 후배인 02학번을 두고 “참여도 많이 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며 회망을 표현했다고 한다.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같은 혜준 대학

어느 시야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인법 어ச파’라는 표지판이 들어온다. 버스에서 내리니 비가 보슬슬 내리고 있다. 학생회관을 감싸고 있는 담쟁이덩굴도, 망작의 숲을 꾸이고 있는 나무들도 온통 비에 맞아 풀었다.

“함께 하던 뜻하는 풍경이 안타까워서” 그는 3학년때 인문대 학생회 기회부장으로 활동했다. 당시 류씨는 세미나를 꼭 가겠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대한 정보도 알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만나 친해지고 싶었던 것이다. 세미나에서 그는 정기자랑·조별시간 등 모든 일정에 활발히 참여했다. 그의 노력을 알아주었는지 그가 속았었던 인문에서는 그에게 ‘세내기 MVP’상을 주기도 했다고.

“상품이 뛰었죠”
“탱탱발발요(웃음)”
그 때문에 선배·동기들이 많이 알아보아서 나쁘지 않은 대학출발을 했다고 웃음짓는 류씨. 당시 상품으로 받았던 탱탱발은 아직도 직하고 있다고 한다.

공동체 문화 무너지는 현실 기습아파

“여기든지 새롭게 느끼는 새내기시절.” 류씨는 대학생활에 잘 적응해갔다. 강론, 우이동... 4년동안 모교지를 그렇게 많이 간 적이 없었다고 그는 전한다. “주제할 수 없을 정도로 출을 미서 기행을 범인 적도 몇 번 있었죠. 하지만 술자리에 빠지기 싫으리라고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고 친해지는 게 참 좋았거든요.”

2학년이 되어 그는 자신의 원했던 사학과에 들어갔다. 하지만 같은 사학반의 동기들 중에

그의 입기에 미소가 지어졌다. 사진을 죄기 위해 명수당으로 향했다. 포즈를 잡아달리고 부른하자 류씨는 하늘을 향해 손가락을 기린했다. ‘달려라’기라는 자신이 4년동안 품었던 화회에서 사진을 죄기때마다 쓰이는 포즈였다.

달처럼 잘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이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의미에서 ‘달려라’기. 한국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이 학회에 들어가서 그의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왜곡된 거짓이었고, 실상 우리나라하는 너무 많이 비틀려져 있다는 것을 깨닫았어요. 너무나 놀랐죠.” 「제4기 우민역사」를 시작으로 김만수 교수와 강경구 교수의 저작을 열독하기 시작한 것도 사학현실에 눈을 뜨는 그때부터라고. “대학에서 일은 기장 소중한 것 중 하나는 아마도 사회를 바라보는 창을 가졌는데... 일 거예요.” 그가 명수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혹시 존경하는 선배가 있나요?”

“제작년에 부총학생회장이었던 황종환(인문·언어 94·제작)선배요. 그 선배, 대학을 빠져나온 농사 짓겠다는 사람이라니. 진정한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기는, 강단에 서고 싶습니다

온대 건물은 융인배움의 가장 위쪽에 위치해 있다. 하늘에 서서히 어두워질 무렵 들품은 시화와 괴짜에는 의사 및 개만 놓아져 있어 설렘한 분위기였다. 이 설립함도 개강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떠벌썩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1) 그는 후배들과 함께 IOC의 ‘캔디’ 춤을 췄다. 강의실을 빌려 연습한 기억을 회상하는

했다. “교문제, 등록금문제...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민주적인 학사구조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봐요. 대학당국이 학생을 대체로 보지 않고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대부분의 학교문제가 합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류씨는 4년동안 학교에서 학생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본 기적이 없다. 대신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면 인도된 것도 된다는 사실을 본 기적이 있다.

류씨는 출입 후, 늦은 나이로 입대할 예정이다. 제대후엔 사회를 배우는 강의 매력을 느낀 한국교대사를 계속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다. 보통 5~6년 동안 공부를 해야 하는 순수학문의 학문 길, ‘취업생각과 할 땐 물론 불편하기도 하다. 하지만 내 인생인데, 어쩌면 내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공부한 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혹 자신만의 학문적 영역을 만들수만 있다면 더없는 영광이 되겠죠.’ 그는 언젠가는 강단에 서고 싶다고 했다. 훗날 우리학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내가 학교에 예술이 이렇게 많았나?

“줄” 업하기 전에 학교에 다시 올 줄은 몰랐는데...” 둘이오는 버스 안에서 류씨는 몇 번이나 이 말을 되뇌었다. 사실 그는 지난 12월, 마지막 학기가 끝난 후 출교 학교를 찾은 적이 있다고 한다.

“졸업...하는 기분이 어때요?”

“...아쉽군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류씨는 출교 학교를 찾은 그 날, 가장 위의 인문대 건물부터 맨 아래 기숙사까지 학교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았다. 추억이 깃든 배움터 곳곳을 만져 보면서 그렇게 하루종일을 보냈다고 그는 이야기하며 “내가 학교에 대한 애착이 이렇게 많았나?”하면서 웃음을 지었다. 웃는 그의 눈가에 물기가 얼핏 보인 것도 같았다.

그렇게 그는 4년동안 자신이 생활한 배움터를 떠났다. 그리고 다음날, 배움터의 노천극장에에는 4년전의 류씨와 같은 설립임을 안고 온 03학번들이 새내기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다.

글·사진 양정호 기자

hufshan@hanmail.net



우리가 누구제?

우리는 외대의 졸라맨 외대학보야!

왜냐구?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

너 두 껴줄까?

여길 봐

대상 : 03·02학번
기간 : 3월 17일(월)까지
장소 : 학생회관 2층 외대학보사
전자우편 : oedaepress@hanmail.net
홈페이지 : www.ihufsan.com
연락처 : 961-4132(서울) 330-4114(용인)

수습모집

우리는 외대의 졸라맨 외대학보야!

왜냐구?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



